

<b>코스피</b> 2754.86 (+64.72)	<b>코스닥</b> 904.29 (+12.84)
<b>금리</b> (미국 9년) 3.306 (-0.065)	<b>환율</b> (원·달러) 1322.40 (-17.40)



선거 유세차량 본격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21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정당 후보의 선거 유세 홍보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뉴스시

## “가계 자금, 부동산서 주식 이동 국내외 성장분야 비중 확대해야”

###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수축경제시대 다양한 위험 대비  
부채·세금·연금 등 관리 중요

2차전지·조선·방산 등 비중 확대  
인구감소·고령화 따른 전략 필요

“100세 시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준비가 대한민국 금융,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산운용 측면을 떠나 부채관리, 세금, 연금 관리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년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수축경제 시기 100세 시대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대독했다.

〈관련기사 2~4면〉

수축경제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의 붕괴, 소비 감소, 생산성 감소, 자본투자 감소, 글로벌 교역감소를 일으키면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를 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축경제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했다. OECD 평균인 1.7%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국제기구, 국내연구소 등은 올해 GDP도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대비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2%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 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대 초반은 성장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2024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을 경기 정점으로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금리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축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테크 방안으로 주식업종의 경우 인공지능(AI), 바이오, 밸류업(Value up)기업에서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방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에서 “구조적으로 가계 자금은 부동산,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국외 차별없이 성장

분야의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7.2% 증액하고, 미국은 대만에 5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무기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방산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식비중도 늘려야 한다. 인구 고령화 상황에 맞는 의료기기(덴탈·피부미용·당뇨·비만)와 생산성 감소에 따른 자동화 기기(AI·로봇·자율주행) 주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은 인구감소를 감안한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축시대 부동산 투자’ 강연에서 “지방은 10년 이내, 수도권은 20년 이내 가구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구분해 부동산 축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를 하더라도 세대별로 집에 대한 욕망이 다른 만큼 2030세대가 주목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문위원은 “아파트를 떠나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기준으로 월세가 잘 나오는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in서울 병원’ 의대는 증원 무늬만 지역편차 극복 비판

서울캠퍼스 수업 성공관외대 3배↑  
지방병원 둔 서울소재 의대는 빠져

정부가 비서울권 의과대학에 2000명 증원을 배분해 발표한 가운데, 서울권 대학 중 의대 편제 지역에 따라 희비가 갈리며 ‘무늬만 지역 편차 극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 연계 병원을 두고 서울캠퍼스에서 대부분 본과 수업을 진행하는 성공관대 의대(소재지 수원)는 증원을 수십 명 늘린 반면, 경기도에 병원을 둔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권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빠지면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인 경기·인천 지역 의대 전체 정원은 209명에서 570명으로, 비수도권 정원이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어난다.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총 363명 증원을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먼저 배정하되,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간 편차 극복을 위해 서울권은 제외하고 경인 지역에 나머지를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권 대학 내에서도 의대 편제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서울 ‘빅5’ 대형병원 중 삼성서울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공관대 의대가 대표적이다. 성공관대 의대는 경기도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 편제돼 이번 의대 증원 대상이 돼 기존 40명에서 3배 늘어 120명으로 늘었다.

서울에 부속병원을 둔 건국대 의대(충주)도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중앙대(중앙대학교광명병원), 한양대(한양대학교구리병원)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에도 대학병원을 두고 있음에도 서울 소재 의대라는 이유로 이번 의대 증원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방과 달리 ‘지역인재전형’으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아, 건국대·성공관대 등과 같이 의대 편제 지역이 비(非)서울이란 이유로 정부의 ‘지역 의료 확충’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hj@

## ‘비둘기’ 연준에 증시 환호... 코스피 2750선 돌파

美, 올해 3회 금리인하 전망 유지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한·일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 끼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3회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일본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2.41% 오른 2754.86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022년 4월 이후 23개월 만에 2750선을 뚫었다.

코스닥 지수도 1.44% 상승한 904.2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이 900선을 넘

은 건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1조8705억원, 1조506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선 3588억원, 175억원을 사들였다.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4만1000선을 넘보다 전장보다 2.03% 상승한 4만815에 거래를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4일에 기록한 증가 최고(4만109)와 지난 7일의 장중 최고(4만472)를 모두 갈아치웠다.

지난밤 뉴욕 주요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인 것이 한·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

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3% 오른 3만9512.13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89% 오른 5224.62, 나스닥지수는 1.25% 상승한 1만6369.41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같은 날 각각 종가 기준 사상 최고로 마감한 것은 2021년 11월 8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 증시의 초강세 이유는 이날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점도표에서 연내 3차례 금리인하 방침을 유지하자 위험선호 심리가 되 살아났기 때문이다.

(6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지지율 3%p 하락 36%... ‘부정평가’ 56% /사진 뉴스시  
▲ 민주주의정상회의 “시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선거 영향 엄정 대응”

▲ 조국혁신당 비례 30% 돌파... 민주 ‘과반’ 확보 차질 빛나  
▲ 국민통합위 ‘과학기술 동행특위’ 출범... “자극심 갖는 연구환경 조성”



▲ 한미, 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 실시... 하마스식 기습공격 대비 /사진 뉴스시  
▲ 스타트업계, 벤처펀드 100조 등 정책 제안... 민주 “세계최고 창업국가 노력”